

이상을 현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성공한 화가
『게인즈버러』



박희숙

- 서양화가
-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미술석사
- 주간 이코노믹 리뷰 『박희숙의 명화읽기』 연재
- 월간 조선 『인물연구』 연재
- 강릉대학교 산업공학과 출강

평범한 사람들의 꿈은 자신의 이상을 현실에서 펼쳐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다. 현실의 눈높이에 맞추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화가가 게인즈버러다.

게인즈버러는 풍경을 그리는 것에 전념했지만 초상화를 원하던 컬렉터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자 풍경과 초상화를 결합시킨다.

게인즈버러가 자연과 초상화를 결합시킨 분야에서 스스로 최고라고 여겨 제작한 작품이 <신사 숙녀가 있는 풍경화>다.

이 작품은 게인즈버러 자신과 아내가 결혼하던 해 그려진 부부 초상화로 풍경과 자연을 동등하게 분배했다.

공원 의자에 앉아 있는 붉은색 옷을 입은 남자는 무릎 위에 책을 올려놓고 있고 여자는 분홍색 공단 드레스를 입고 있다. 남자가 허리춤에 찬칼과 여자의 공단 드레스는 인물들이 귀족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하지만 인물들의 옷차림이 예술가에게는 어울리지 않지만 이 작품이 결혼을 기념하기 위한 초상화라는 것을 나타낸다. 배경의 울창한 숲과 신전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강조한다.



<신사 숙녀가 있는 풍경화>-1740년경, 캔버스에 유채, 73*68, 파리 루브르 박물관 소장

게인즈버러는 생계를 위해 고향 주민들을 상대로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알려지게 된다. 게인즈버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작품이 <앤드류 부부>다. 로버트 앤드류와 프란시스 카터는 1748년 22살과 16살의 나이에 결혼식을 올렸고 이 작품은 그들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결혼 직후에 제작되었다.

참나무 뒤로 펼쳐지는 전원은 그들 부부의 사유지인 어베리다. 구름이 금방이라도 덮칠 것 같이 낮게 드리워져 있는 영국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젊은 신부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최신식 옷을 입고 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있다.

신부 옆에 있는 앤드류는 사냥꾼의 옷을 입고 엽총을 옆구리에 낀 채 자신의 영지 한가운데 자랑스럽게 서 있다. 그들의 사유지를 드러내놓고 싶어서 젊은 부부는 화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들 젊은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한다.

이 작품에서는 젊은 부부의 사회적 지위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앤드류가 엽총을 들고 있다는 것은 사냥면허를 소유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 사냥면허는 특권층만 소유할 수 있었다.

앤드류의 발 옆에는 사냥개가 서 있다. 전통적으로 개는 부부간의 정절을 상징하지만 결혼 기념 초상화였던 이 작품에서 개가 등장하는 것은 의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로코코 양식의 의자에 앉아 있는 신부는 가장 좋은 옷차림으로 하고 예절 바르고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다. 하지만 신부의 무릎 부분은 미완성이다. 게인즈버러가 미완성인 채 남겨둔 부분은 책이나 태어날 아이를 위해 일부러 남겨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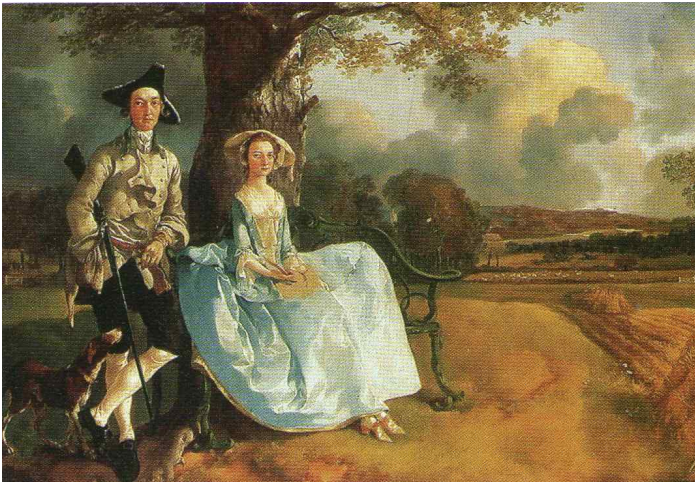
이 작품에서 추수가 끝난 밭 앞에 곡물이 수북이 쌓여 있다. 곡물은 다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결혼 기념 그림에 들어가는 상징물이다.

그 뒤로 넓게 펼쳐져 있는 초원 한가운데 울타리 안에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당시 양떼를 가둬두는 것이 유행이었다. 교회의 탑은 이 작품의 배경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한다. 케인즈버러가 태어났던 서드베리의 성 베드로 성당의 탑이다.

케인즈버러는 주요 후원자들 위해 우아하고 세련된 초상화로 선보이면서 곧 상류층에게 인기를 끌어 1768년 영국 왕립 아카데미의 창립회원 멤버로 뽑히는 영광을 맞이한다. 케인즈버러는 조지 3세와 샬롯 여왕의 가장 큰 총애를 받는 초상화가가 되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초상화 스타일을 바꾼다. 서정적인 우아함을 버리고 건축적인 요소를 강화해 웅장한 느낌이 나는 초상화를 제작하면서 최고의 명성을 얻는다.

토머스 케인즈버러<1727~1788>는 당시 전통적인 초상화에서 벗어나 인물과 배경, 허구와 자연을 결합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18세기 중요한 화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풍경화는 살아 있는 동안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했지만 영국 풍경화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앤드류 부부>-1749년경, 캔버스에 유채, 69×119, 런던 내셔널 갤러리 소장